

일본연구센터 동정(2009.9.1~2010.2.28)

I. 학술행사

1. 국제 학술 심포지움

◆ “일본근세문학·문예의 중심과 주연”

2009년 9월 18일, 고려대학교 BK21중일언어문화교육단과 본 일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움은 “일본근세문학·문예의 중심과 주연”이란 테마로 ‘일국문학’을 뛰어넘는 지역학으로서의 근세문학·문예연구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장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일본 고전문학을 다시 읽기에 관하여 한일 양국의 연구자가 다양한 시점을 제시하고 심도있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자		발표내용
나가시마 히로아키 (長島弘明)	도쿄대학	모노가타리집(物語集)으로서의 『쓰즈라부미(藤簾冊子)』-아키나리(秋成)의 모노가타리(物語) 생성-
김영철	한양대학교	주연(酒宴), 그 유흥과 풍류의 허실
이쿠라 요이치 (飯倉洋一)	오사카대학	아키나리(秋成)의 ‘이쓰와리(いづはり)’의 문제- 『하루사메 모노가타리(春雨物語)』를 중심으로-
사에키 준코 (佐伯順子)	도시샤대학	‘두개의 색도(色道ふたつ)’의 시대
최경국	명지대학교	회화 속 임진왜란에 있어서 일본무사의 호랑이 사냥
스즈키 준 (鈴木淳)	국문학연구원 료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문학관-사테모 메메시토야 기키타마완(さてもめめしとや聞たまはん) -
고영란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에도시대와 ‘궁귀(窮鬼)’
사에키 다카히로 (佐伯孝弘)	세이센여자대학	근세전기 괴이소설과 웃음
박희영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아키나리(秋成)에 있어서 괴기의 변화와 그 의미

2. 콜로키움

본 연구센터의 콜로키움은 해외의 저명한 일본연구자를 초빙하여, 최신의 일본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09년에는 총 6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일본의 역사,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해외의 일본 연구현황에 대한 진단 등이 이루어졌다.

일시	2009년 11월 25일 (제15차 콜로키움)	
발표자	이마니시 유이치로 (今西祐一郎)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관장
제목	그림이 있는 책·그림이 없는 책 -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의 판본을 둘러싸고-	
일시	2009년 12월 1일 (제16차 콜로키움)	
발표자	리취 (李卓)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 원장
제목	중국의 일본연구	
발표자	청용밍 (程永明)	텐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제목	중국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TV드라마 방송 상황	
일시	2009년 12월 3일 (제17차 콜로키움)	
발표자	이이 하루키 (伊井春樹)	전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관장
제목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새로운 독해의 세계 -오사와본(大沢本)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출현을 둘러싸고-	
발표자	W. J. 보트(Boot)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제목	유자(儒者)의 신학(神学)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귀신론(鬼神論)』을 중심으로-	
일시	2009년 12월 9일 (제18차 콜로키움)	
발표자	귀딩핑 (郭定平)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
제목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한중일 협력	
발표자	장하오훤(張浩川)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 부소장
제목	중국에서의 일본연구의 현상과 문제점	

3. 특별강연회

일본연구의 전문 연구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관련분야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폭 넓은 지식습득 및 국제적인 일본연구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일시	2009년 9월 25일	
발표자	서용달 (徐龍達)	모모야마가쿠인대학 명예교수
제목	다문화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재일한조선인(在日韓朝鮮人)	

일시	2009년 10월 20일	
발표자	요시하라 유카리 (吉原ゆかり)	쓰쿠바대학 교수
제목	문학에 대한 다양한 어프로치-기리노 나쓰오(桐野夏生) 『아웃(OUT)』의 여성들	

일시	2009년 11월 9일	
발표자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 · 전 일본 외무심의관
제목	민주당 정권 하의 일본	

4. 일연포럼

본 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일연포럼은 학내외 일본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취지 아래 개최되고 있다. 일연포럼 주최에 대한 정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일시	2009년 9월 21일	
발표자	김선희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제목	크리스트교에 대한 근세 일본 지식인의 입장 -히야시 라잔을 중심으로- 토론:이기원(강원대) · 가나즈 히데미(고려대)	

일시	2009년 10월 27일	
발표자	이성시	와세다대학 교수
제목	2010년 시점에서 조망해 본 고대한일 관계사	
	토론: 박찬홍(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 전성곤(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시	2009년 11월 23일	
발표자	김수미	고려대 교수
제목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와 일본의 건축문화	
	토론: 박연정(한국 디지털대학교) · 박희영(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시	2010년 2월 2일	
발표자	김지룡	문화평론가
제목	“일본문화, 봄인가, 문화인가?”	
	토론: 이진숙(국가 브랜드 위원회) · 김희정(고려대 일본연구센터)	

II. 국내외 교류

본 연구센터는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연구의 거점마련을 위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본 연구센터는 더욱 정치하고 심층적인 일본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타 기관과의 교류 현황은, 2008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의 교류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도 향후 교류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소,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 경원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와도 학술 교류를 증진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한편, 2009년 하반기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교류협력내용	일시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 (南開大学 日本研究院)	MOU 체결	2009. 9
국문학연구자료관 (国文学研究資料館)	MOU 체결	2009. 11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 (復旦大学 日本研究中心)	MOU 체결	2009. 12

Ⅲ. 연구센터 간행물

본 연구센터는 정기간행물인 <일본연구>이외에도 일본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일본연구총서>, 심도있는 일본이해를 위해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일본명작총서>,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를 선도해갈 <현대일본총서>등 다양한 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연구총서 6권, 일본명작총서 5권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했으며, 2008년부터 도서출판 문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제1차로 향후 1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 일본학 총서

본 연구센터에서는 한국 내 체계적인 일본문화 연구를 진작함과 더불어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본연구총서」 간행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시리즈인 ‘일본학 총서’는 일본의 문화, 역사, 문학, 어학, 교육 등에 관한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총8권의 학술서가 간행되었다.

◆ 일본명작총서

‘일본명작총서’는 한국 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모노가타리(物語)·요코쿠(謡曲)·교젠(狂言)·하이쿠(俳句) 등 일본의 고전시리즈를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접해본 적이 없는 일본 문화의 원류를 번역, 소개하여 국내의 일본학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한국학 및 서양학연구자, 일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본문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총8권의 고전 명작이 번역되었다.

◆ 현대일본총서

근년에 새롭게 기획된 현대일본총서는 현대 일본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시리즈이다. 사회적, 학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인 현대 일본의 여러 가지 측면에 주목한 의욕적인 기획 시리즈이다.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총 2권이 간행되었다.

※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까지 간행된 연구센터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일본명작총서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春雨物語) 우에다 아키나리 저·조영렬 역	아키나리가 만년에 죽음 직전까지 개고를 거듭했던 『하루사메 모노가타리』는 생전에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본으로만 전해져, 근대에 들어와서야 그 의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전후(戰後)의 일이다. 번역서의 발행을 통해 근대 일본 문학 연구사에 그 위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년 12월 간행)



제1회 판우번역상 시상식

「판우번역상」은 일본연구의 선구자로서 척박한 한국 내 일본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주옥같은 번역을 통해 일본문학 소개 및 대중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번역원장 판우(板雨) 김춘미(金春美)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본 번역원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공고, 2009년 5월 접수 마감하여 제1차 심사, 제2차 심사를 거쳐 『웃는 늑대』를 번역한 김훈아씨를 본 상의 제1회 대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5시,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에서 제1회 판우번역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일본 문학과 대중문화 연구에 힘을 쏟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신진번역가로 장래가 촉망되는 김훈아 씨의 수상을 축하하셨다.



오른쪽부터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최관 교수, 일본번역원장 판우(板雨)김춘미 교수, 판우번역상 수상자 김훈아 씨, 소설가 신경숙 씨, 선고위원 김윤식 교수, 윤상인 교수.

수상작품



이번 판우번역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는 일본의 대표작가이자, 다자이 오사무의 딸이기도 한 쓰시마 유코(津島佑子) 원작의 『웃는 늑대(笑いオオカミ)』의 역서이다. 원작은 패전 직후 일본에서 어머니를 모르는 열 일곱 소년과 아버지를 모르는 열두 살 소녀가 꿈속을 방황하듯 여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운명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참신한 주제와 방법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아사히신문이 주최 하는 ‘오사라기지로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수 상 자



● 김훈아

성신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센슈대학에서 일본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신여자 대학교와 국민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재일 조선인 여성문학론』(일본에서 출간)이, 번역서로는 『일요일의 석간』 『쓰지 히토나리의 편지』 등이 있다.

<김훈아 번역서>

- 시게마츠 기요시 작 『일요일의 석간』(소담, 2004.11)
- 쓰지 히토나리 작 『쓰지히토나리의 편지』(소담, 2005.5)
- 쓰지 히토나리 작 『사랑 후에 오는 것들』(소담, 2005.12)
- 신경숙, 쓰시마 유코 작 『산이 있는 집, 우물이 있는 집』(현대문학, 2007.8)
- 유미리 작 『비와 꿈 뒤에』(소담, 2007.11)
- 쓰시마 유코 작 『웃는 늑대』(문학동네, 2008.9)
- 오오하시 시즈코 작 『멋진 당신에게』(리수, 2008.11)
- 공지영 작 『愛のあとにくるもの』(幻冬社, 2006.3)
- 신경숙, 쓰시마 유코 작 『山のある家、井戸のある家』(集英社, 2007.6)

1차 예비심사를 거쳐 판우심사위원의 선고위원장 및 선고위원의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된 번역가 김훈아 씨의 『웃는 늑대(笑いオオカミ)』에 대한 선고의견은 다음과 같다.

선고위원소개 및 선고의견

선고위원장: 김윤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고위원: 윤상인(한양대학교 교수)

선고위원: 최관(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훈아 역 『웃는 늑대』는 번역자의 성의와 역량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변화무쌍한 문체 속에 몽환적 세계를 녹여낸, 결코 옮기기 쉽지 않은 원작을 흐트러짐 없이 안정감 있게 번역했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도 자상하고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원작을 꼼꼼하게 읽어낸 후에 이를 옮겨 담을 적절한 어휘 선정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

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시종일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자 하는 번역자의 성실한 자세는 인상적이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작가 쓰시마 유코의 묵직한 원작을 옮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제1회 판우번역상의 수상자가 될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판우번역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소정양식의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접수를 받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